

# 100리 오가며 탁발 굶는이들 도와

## 경허 스님 수행 일화

### ㉔ 묵군자(默君子)와 광녀(狂女)

해인사 시절의 어느 날이었다. 경허 스님은 경상도 지방에서 유명한 묵군자(默君子)의 소문을 듣게 됐다. 경허 스님은 그가 있다는 한 암자를 찾아갔다. 경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암자의 방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묵군자는 방 안에 혼자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경허 스님이 들어가 앉는 것을 뵈히 보면서도 벽을 보듯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몇시간을 두 사람은 나란히 보며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동안을 서로 말없이 앉아 마주보기만 할 뿐

군자와 광녀는 모두 같은 도반  
묵향과 석은내 구분할바 있으리  
말하지 않음 속에 범거랑 있고  
한데 뒤업김 속에 불법 나뉘

이었다. 묵 군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마주 앉아 있던 경허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묵군자, 묵군자. 내 그대의 이름을 들은지가 오래더니, 과연 헛된 이름이 아니로군.”

묵군자가 곧 대답했다.

“네, 경허 스님, 경허 스님. 성망(盛望)을 들은지가 오래인데 바로 경허 스님이 아니시오.”

생면부지의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묵군자는 경허 스님을 바로 알아보았다. 묵군자가 하인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묵군자는 하인을 시켜 주안상을 한상 차려오도록 했다. 법당의 상대를 만난 서로는 백년지기와 같이 함께 음식을 들며 이야기를 쏟아냈다. 몇일 동안 경허 스님과 묵군자는 한방에 묵으며 법을 논하며 지냈다.

경허 스님의 경지가 드러난 일화는 또 있다. 그 대상은 군자로 이름을 날린 묵군자와 반대인 광녀였다.

경허 스님이 해인사 조실로 있던 어느날이었다. 경허 스님은 만신창이가 된 광녀를 데리고 와 조실방에서 같이 식사하고 자곤 했다. 이 광녀는 스님이 자신을 예배하는 줄 알고, 가지도 않고 조실방에서 계속 기거하며 숙식을 함께 했다.

만공 스님은 이런 모습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문 밖에서 혼자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 경허 스님을 불러 오면 “스님께서는 지금 주무십니다”하며 돌려보내곤 했다.

만공 스님이 몇일 뒤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경허 스님은 광녀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다리를 걸치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 광녀를 자세히 보니 코도 눈도 분간할 수 없었으며 손가락도 없었다. 또 걸친 옷은 고름과 소변에 젖어서 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며 씻지도 않아 몸에서는 송장 썩는 악취까지 풍겼다.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의 경계를 한참 서서 생각했다. 자신이 만약 저 여자를 저렇게 같이 데리고 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도저히 할 수 있는 자인이 없었다.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공 스님은 열 번을 고쳐 생각해도 경허 스님의 법력을 따를 수가 없구나 하여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 ㉕ 지리산 기슭에서의 자비행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마천(馬川)이라는 마을이 있다.

마천 마을이 자리한 심산 유곡은 실상사(實相寺)·백장암(百丈庵)·벽송사(碧松寺)·상무주(上無住) 등지로 갈 수 있는 길목이지만 무성한 숲 속 오솔길로 놓고 험한 재로 인해 이따금 길손이 찾을 뿐이었다.

어느해 초여름 무렵이었다.

모진 흉년 끝에 마천 마을 주민들은 보리고개를 넘다 못해 굶주려 아사할 직전에 이르렀다. 당시 는 일제 강점기로 어지럽고 어렵던 암흑시기여서 어느 누구도 두메산골의 가파른 민생고를 해결 할 수 없었다.

경허 스님이 우연히 그 곳을 지나게 됐다. 스님은 지리산 마천 마을의 참상을 보고는 가던 길을 멈추었다. 한동안 생각에 젖어 있던 스님은 가던 길을 되돌려 남원 쪽으로 향했다.

스님은 단숨에 100리 가까운 길을 걸어 남원 땅에서 탁발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스님은 가까스로 바깥 가득히 곡식을 모을 수 있었다. 경허 스님은 그 짐을 짊어지고 걸음을 재촉해 100리 길을 다시 걸어 마천 마을로 돌아왔다. 스님은 집집마다 손수 돌며 굶주린 주민들에게 손수 식량을 나눠주면서 자비 보시행을 베풀었다.

여러 차례 걸쳐 스님은 100리를 걸어 탁발을 하고 또 100리를 걸어 자비행을 베풀었다. 굶어 숨넘어갈

탁발과 보시행은 다르지 않아  
굶주림 앞엔 부처도 없어  
100리 길 걸음이 행선  
한마음 내는 순간 부처

고비에 놓인 두메 사람들을 계속 이처럼 살려놓은 뒤에야 스님은 이렇다할 말도 없이 비로소 가던 길을 다시 걸어 산중 오솔길로 접어들어 홀로 자취를 감추었다.

지금까지도 지리산 기슭 마천 마을 일대에는 굶주려 죽게 된 산골 사람들을 구원한 경허 스님의 자비행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림·박구원

###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9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능인로즈마리·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로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 문의 : **현대불교 원불잡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뎌 출가익식 지원**  
신뎌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